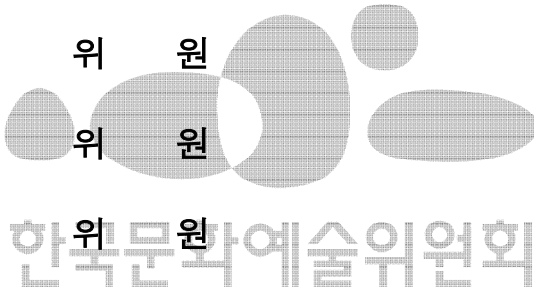


# 속 기록

1. 회 의 명 : 제361차 위원회 전체회의
2. 일 시 : 2023. 8. 25(금) 14:03~17:45
3.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4.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 1. 성원 보고

**정갑영 위원장대행** : 오늘 정병국 위원장님 국회 출석관계로 예술위원회 정관에 의해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장님이 돌아 오시면 위원장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제36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공모계획(안)과 보고안건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안건 중에는 국회지정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술위원회는 국회지정사업 담당부서와 주관단체의 보고를 통해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올바르게 진행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을 위해 국회지정사업 주관단체가 오후 2시 20분경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총괄부 서유미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정갑영 위원장대행** : 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갑영 위원장대행**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전차 회의는 7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4. 의 결 사 항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1017호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공모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나주 본관에 일정이 있어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1017호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공모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차 회의를 통해서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총괄기획자 미선정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 2억 원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구성은 당시에 모두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대비 변경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총괄 기획자 사업의 부담은 덜 되 역할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견을 주신 대로 예술인 개인과 단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고요. 주제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기술 융합분야와 자유주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의 경우 리서치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내외 공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 리서치와 사전리서치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매개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캐나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리서치를 추진합니다. 현황조사와 분석 그리고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나 SNS 등에 국·영문으로 공개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받아 사업종료 후에 이 결과물이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페이지에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개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양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선행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최근에 캐나다 출장을 다녀왔는데 현지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편이라서 한국과 교류할 수 있는 정보나 관심사, 주요사례들이 상호 공유된다면 향후 한국과 캐나다의 교류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총 2억 원이고 2건 내외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개인 프로젝트가 아닌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이 된다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11월 초에는 지원협약을 맺고 1년 2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원심의의 경우에는 지난 총괄기획자 사업과 일관된 방향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접수 건을 검토해서 문화일반 분야에서 적격자 지정 방식으로 위촉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섭외 현황에 따라서 국제사업 심의위원을 위촉하시는 정갑영 위원님, 홍성태 위원님께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캐나다 측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캐나다는 별도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공모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홍성태 위원 : 캐나다도 이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건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기존에도 총괄기획자 사업은 저희 예산에서 할당해서 진행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동일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홍성태 위원님 말씀은 캐나다 측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당초 계획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입니다. 그중에 리서치사업이 3억 원 그리고 총괄기획자 사업에 2억 원을 배분해 놓은 상태고요. 캐나다에서는 별도로 3억 원 정도의 규모로 리서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의견을 주시죠.

서승미 위원 : 추진절차에서 일정을 보면 신청서 접수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공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규정상 21일 정도의 접수기간이 최소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곳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잖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기존에 한 번 지원받았던 사람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다른 국가사업에 참여했던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미 위원 : 아니요. 동일 사업이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리서치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미 위원 : 예.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리서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투입되는 리소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 투입 등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신청분야에 예술과 기술 융합과 자유분야로 제안하셨는데 예술과 기술 융합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한국과 캐나다 교류사업을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계속 진행해 왔고 협력기관과도 논의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캐나다의 공동관심사, 그리고 유사한 수준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예술과 기술 융합 분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캐나다라고 하면 예술과 기술 융합 분야로 교류하고 싶은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사업수행내용을 보면 리서치가 40%고 매개형이 60%로 되어 있는데 주요 수행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예술활동 현황에 대한 리서치를 추진하는 식인데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때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막연한 측면은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와 교류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주제, 분야의 구체성이 떨어져 특정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우선은 ‘예술과 기술 융합’ 하나의 주제를 제안했고 나머지는 자율주제로 개방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영역 외에 교류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더 제안을 받아보고 싶어서 오히려 개방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김진각 위원** : 캐나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수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아예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 융합, 자유분야 주제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압축해서 제안을 한다면 훨씬 더 알찬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김미라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국제교류 쪽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했습니다. 제가 참관을 했는데요. 이런 국제교류 쪽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셨거나 심의를 해 보셨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술단체로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기관도 교류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두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리서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술단체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도 있는데 사실 예술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도 참여했다면 좋겠다는 자율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모사업에 대해 국제교류부가 저에게 사전에 논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번에는 주제를 열어놓음으로써 기대를 해보는 거죠. 캐나다 정도면 너무 먼 나라도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하면 단기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주제를 열어놨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김진각 위원** :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성과가 있어야 하

는데 이 수행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두 나라 간의 교류협력을 끌어낼 성과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이 나오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용으로 실었다고 보지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미라 위원** : 오히려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캐나다 출장도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곳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모하는 단체가 선정된 이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캐나다 네트워크가 선정되는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러면 김나영 부장께서 김진각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양했으면 하는 예술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였고요. 오히려 주제를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더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김진각 위원님의 말씀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와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을 해 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감사합니다.

## 5. 보고 사항

**정갑영 위원장대행** : 보고안건입니다. 2023년 국회지정사업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사업 보고와 소위원회를 비롯한 보고안건 7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인 국회지정사업에 대해서 강병주 공연예술부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업 주관처인 예스로아컴퍼니 정도영 연출감독이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문화관광과 이혜주 과장, 박혜연 주무관, 대구동구문화재단 남태진 기획경영본부장, 경영사업부 하희정 팀장, 예스로아컴퍼니 김현숙 대표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공연예술부장** :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 국회지정사업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7페이지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예산은 약 8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공모로 진행된 66건에 대해 80억 원 정도가 선정되었고 국회를 통해서 지정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의 내용은 서울국제무용콩쿠르와 창작오페라 허황후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입니다. 앞서 3건의 지정사업 중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와 창작오페라 허황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건의 공연예술 행사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지정사업으로써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께서 3억 원을 요구하셨으나 2억 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2억 원에 더하여 대구시에서 시비로 1억 원 그리고 대구동구 구비로 1억 원, 총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동구청 구비 1억 원은 9월 21일 구의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총 4억 원의 보조금에 더하여 문예진흥기금 2억 원에 대한 자부담 10% 이상 의무 편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주관단체인 예스로아컴퍼니에서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비는 총 4억 2,230만 원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공연내용은 12월에 대구동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아양아트센터에서 본 공연을 2회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내용은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수호해 온 역사적 인물들을 뮤지컬로 스토리텔링하여 공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참석해주신 예스로아컴퍼니의 정도영 연출감독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업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면 9월 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12월 본 공연 2회 공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혹시 사업개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경 위원** :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강병주 공연예술부장** : 예.

**이훈경 위원** : 이게 9월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에도 보면 지정사업 보고를 할 때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다시 준비해서 재보고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혹시 오늘 이 사업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9월에 진행하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강병주 공연예술부장** : 물론입니다. 오늘 사업내용을 들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검토한 후에 교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일정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보고안건에 대해 접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강병주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 공연예술부장** : 주관단체의 사업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예, 지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홍성태 위원** : 무료 공연인가요?

**정갑영 위원장대행** :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정도영 연출감독님, 동구청에서 오신 이해주 과장님, 박혜연 주무관님, 남태진 기획경영본부장님, 경영사업부 하희정 팀장님, 예스로아컴퍼니 김현숙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도영 연출감독님과 김현숙 대표님께서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연출감독** :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팔공산 오디세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소개부터 성과 목표 및 기대효과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맡은 저는 올해까지 17년간 100여 편의 크고 작은 뮤지컬에서 안무가이자 연출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 김현숙 대표와 함께 본 작품의 초기단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도영입니다.

다음은 예스로아컴퍼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스로아컴퍼니는 대구의 대표적인 공연제작사이자 문화예술교육기관입니다. 저스크즐크, 플로우엑셀 등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대구에 유치하였습니다. 미스코리아대회, 패션쇼, 댄스뮤지컬 제작 등 지역문화체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 작품 ‘팔공산 오디세이’를 공연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의 홍보 및 쇼케이스, 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본 작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는 팔공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이 땅과 민족을 지켜온 역사 인물들을 소재로 한 지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이자 지역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하여 유니버스 형식의 대서사시로 재구성한 지역 최초의 공연예술 작품을 만들어 팔공산과 인근 지역에 조성된 유적지 곳곳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 지역 관광지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팔공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우리 민족을 지켜온 역사 인물들을 스토리텔링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를 높이고 팔공산 국립공원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제작될 콘텐츠의 에피소드1은 대구광역시 기념물 1호 문화재로 등록된 신승겸장군유적의 역사적 소재를 이야기로 삼을 것이고요, 에피소드2에서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인 홍의장군 망우당 괄재우와 함께 의병들의 활약상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로 구성될 겁니다. 에피소드3은 조양회관으로 항일 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세부계획입니다.

팔공산을 비롯하여 에피소드 상에 드러난 여러 의미 있는 역사 유적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 작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확보하고 정기 공연화 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문화관광상품으로 성장시킨 뒤에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연계 콘텐츠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 합니다.

추진일정 및 계획입니다.

현재 수 차례 쇼케이스를 통해서 대본 초안과 주요 창작진까지 구성이 완료되었고요. 지난 7월 메인 출연진도 섭외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오디션 공모를 내고 연습실을 잡아서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연은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입니다.

2023년도 올해는 공연 전석무료, 중장기적으로는 티켓판매 및 공연수익, 후원 및 기업 스폰서십으로 사업을 이어가려 합니다.

2023년도에는 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함과 동시에 더 많은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티켓판매 전략과 홍보/마케팅 시행, 굿즈, 기념품 판매를 통하여 뮤지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후원 제안 및 스폰서십을 구축하여 본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참고로 벌써 4년째 대구신세계백화점과 대구은행 및 여러 건설사, 병원 등과 업무협약 및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사 예스로아컴퍼니는 스폰서십을 통한 자금 모집 경험이 풍부해서 작품의 검증 이후에는 더 많은 자본 유치가 가능합니다. ‘팔공산 오디세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후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3,000만 원, 2022년 5,000만 원입니다. 저희 공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이만큼 쏟아 주셨습니다. 정규 공연 시에는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 2,23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집행은 국비와 자부담, 광역시비, 기초구비로 나누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에피소드 1, 2 공연진행, 평가 및 피드백 수집, 후원 및 스폰서 확대를 할 것이고요. 2024년도에는 전년도 공연의 평가 및 피드백 적용을 통한 작품성 강화와 여러 페스티벌 참가로 저희 작품의 인지도를 높일 것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콘텐츠 IP를 활용한 공익사업, 수익사업을 통해 저희의 사업목표인 지역관광활성화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 상승과 팔공산 국립공원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2023년도 이후부터는 세트, 의상 등을 제작하는 제작비 감소로 매해 2.7억의 진행비만으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피소드 분할 공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공연의 특성상 의상비용을 염두 해서 매년 1편씩 제작할 것입니다. 제작된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는 공연관람 후 온라인 또는 설문지를 관객들에게 배포, 관객들 및 전문가단체들에게 배포, 설문을 모아 SNS 및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를 평가하는 평가단은 예스로아컴퍼니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무진을 모실 것입니다.

홍보 추진방향입니다.

유명인을 활용, 소셜 미디어, 이벤트 및 팬미팅, 지역 미디어 그리고 지역 관광단체 협력을 통해 본 작품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댄스팀 ‘저스크 절크’와 B-boy 국가대표 ‘플로우 엑셀’이 직접 출연하는 숏폼 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해당 아티스트들은 예스로아컴퍼니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의 공연 스케줄, 배우들의 인터뷰, 메이킹 영상 등을 공유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스로아컴퍼니는 기업 내부에 영상 팀을 보유하고 있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 광고기획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관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해 홍보 이벤트나 팬미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2023년도 본 공연에 노트르담 드 파리의 남자주인공 윤형열, 벤허의 여자주인공 이정화 그리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최연동을 캐스팅함으로써 더욱 성과가 높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역 신문사, 방송국, 온라인 뉴스 포털 등과 협력하여 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와 관련된 기사와 보도자료를 제공해 홍보하려고 합니다. ‘팔공산 오디세이’는 지역시민 모두를 위한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시민들과 매체들의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입니다.

2023년도 공연관람 수 2,200명을 예측하고 유명배우 섭외와 작품 완성도를 통해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운영팀과 지역 예술가 약 7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요. 공연 관람객의 관광을 통해 관광산업과 팔공산 국립공원 홍보, 작품의 감동적인 역사와 교훈적 메시지를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팔공산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유적지들을 흥미 있게 소개해서 관광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오디세이’를 통해 문화가 즐거운 대구, 꼭 가고 싶은 대구를 만들고자 하는 예스로

아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추가로 더 설명하실 건 없으십니까?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예, 없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우선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뮤지컬은 굉장히 대규모의 뮤지컬인데요. 2023년 11월에 제작발표회, 12월에 2회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홍보 전략도 굉장히 많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뮤지컬은 프레스콜 공연을 하잖아요? 프레스콜 공연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공연을 알리는데 프레스콜 공연에 대한 기획이 없어요. 2회 공연을 하는데 한 회를 프레스콜로 한다고 해도 공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뮤지컬은 보통 상설공연을 하잖아요? 무료 공연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상설공연으로 구성하고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아무래도 프레스콜 공연 같은 경우는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이 벌써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심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계획한 것은 일단 2회 공연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우들의 스케줄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8월까지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저희 나름대로 배우들의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올해 프레스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이라고 하셨나요?

**배은주 위원** : 2회 공연이니까 2회 공연을 상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상설공연은 못 하시는 거죠?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배은주 위원** : 그러면 프레스콜이라는 게, 뮤지컬은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언론에 자료를 배포할 때 조명과 드레스 리허설까지 포함한 화면의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연출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통 3회나 4회로 진행하거나 2회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프레스콜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사진을 배포해서 홍보전략으로 쓰거든요. 2회 공연으로 이미 공연에서 찍힌 사진으로 홍보하기에는 2023년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뮤지컬의 제작 기간을 살펴봤을 때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아양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 상반기, 하반기로 대관이 나뉘어 있는데 이미 하반기 대관이 5~6월에 끝난 상태이다 보니 이때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연출감독** :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2회 공연인데 어떻게 프레스콜도 없이 홍보마케팅을 해서 관객을 모으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 공연을 시연했던 쇼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연한 쇼케이스 자료들을 포함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프레스콜은 아니지만 기자단에게 기사를 쓰기 위한 장면들을 연출해서 기사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공연을 대비한 것이고 이

번 공연을 대비한 것은 이전에 만든 쇼케이스 자료들과 출연하는 유명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넣어서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훈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리서치, 자료조사를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예산도 미정이고 배우들의 일정도 정확되지 않았고 극장대관도 5~6월에 이미 다 끝난 상태라 이틀밖에 대관을 못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준비기간이 길었던 것과는 반대로 너무 촉박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와 2025년도 계획표를 보니 각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국비나 지정사업으로 하시고 차후 2년 동안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도영 에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공연을 준비하는 기획단계의 기간이 프로덕션 기간보다 너무 짧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훈경 위원** : 아니요. 그 준비기간이 꽤 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배우들의 스케줄도 미정이라고 하셨고요. 예산도 정확하지 않아서 공연일정을 더 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전준비에 비해서 공연준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정도영 에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예산에 대한 부분은 김현숙 대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에스로아컴퍼니대표** : 예산을 확정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자부담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동구문화재단과 공동주관을 하게 되면서 자부담을 넣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삼의날짜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저희끼리 준비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배우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라서요. 지자체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저희는 지난 7월에 배우들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쯤 공연을 하게 될 것인지는 대구동구문화재단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대본 초안도 나왔고 지난달에 주요 창작진과 주요 출연진은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에 준비기간이 길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쇼케이스를 미리 만들어놨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지 올해 초부터 기간이 많이 주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 이후에 앞으로 공연 연습 날짜와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오디션 일정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회지정사업이고 11월에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그 전에 준비가 돼서 여유롭게 보고 일정을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11월 공연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김현숙 에스로아컴퍼니대표** : 아무래도 국회지정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있지만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추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구시 추경예산으로 7월에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게 7월 말이었어요.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예술위원회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 추경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열 위원** : 이 예산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술단체나 예술가 개인이 정말 힘들게

공모지원을 해서 지원받는 예산을 빼서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꼼꼼히 계획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출해주신 계획서를 보면 내용에 구체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로 일정계획 같은 것도 세부적인 일정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도대체 어떤 배우가 출연을 하는지? 작곡은 어떤 분이 참여하고 언제 끝내는지? 그리고 에피소드가 어떻게 연결돼서 관객들에게 호소력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어야 하는데요. 연습은 언제 들어가서 11월에 어떻게 공연을 하실지도 여기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공연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계획서만 보고는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후원 등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 설문조사 관련하여 하나만 더 결들이자면 전문가 설문조사는 당연히 하셔야 하겠지만 관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객평가단을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몇 분에게라도 평가를 하는게 도리어 대구동구문화재단이나 예스로아컴퍼니에서 활용을 하시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확정된 작곡가나 배우의 이름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그동안 쇼케이스와 트리아아웃 공연까지 했었다고 저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함께 했던 기존 배우들에서 달라져서 2023년도 노트르담 드 파리의 남자주인공인 윤형열 배우와 뮤지컬 벤허의 이정화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했고 지금 드라마 연인에 나오는 최연동이라는 뮤지컬 배우가 캐스팅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최은미 작곡가라고 해서 뮤지컬 왕의나라 등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가 계십니다. 그분과 몇 년째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열 위원** : 그러면 작곡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까?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지금 대본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정종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본 초안이 나왔잖아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정종열 위원** : 그런데 지금부터 작곡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작곡을 하고 작곡이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최근에 플롯은 만들어졌거든요. 대본에 대한 시놉시스나 트리트먼트까지의 정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음악이 어떤 라인으로 나와야 되는지는 기존에 작곡해 놓은 샘플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상의가 끝나서 본 작곡에 대한 마무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하자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정도영 연출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술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의를 통해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하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이 결과의 의미가 더 있어야 하는 거죠. 일반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것보다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연출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위협했던 상황이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그런 문제들이 닦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워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찾아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대부분 가장 힘든 것은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제작·기획 단계가 모자랐을 때 많이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 도출을 빨리하는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협의들은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팀이기 때문에 “그거 하자.”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결론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팀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완벽하고 빠르게, 이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구조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아까 질문을 드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후 2년 동안 매년 2억 7,0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고요. 혹시라도 오늘 승인이 안 되면 11월 공연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도 궁금했던 것은 4억이나 되는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데 왜 대구에서는 7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준비를 급하게, 물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은 9월과 10월 동안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출된 서류나 설명을 들어도 9월과 10월에 준비해서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왜 승인이 이렇게 늦어져서 준비를 급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작년에는 대구시 추경이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추경이 7월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지방비 매칭이 늦게 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발표회가 11월이고 공연은 12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투입할 2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구동구문화재단과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많은 스폰서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사업설명회를 열어 후원회 모집을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노력과 예스로아컴퍼니의 자부담으로 내년부터 공연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3년도 공연 이후의 공연들은 뮤지컬 안에서의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이나 마케팅, 티켓판매를 열심히 해서 그에 따른 판매수익이나 MD제작 등을 추가적인 매출로 잡아서 운영할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그리고 지방비 매칭이 늦어진 이유는 대구시 제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청담당 주무관님과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뮤지컬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대구시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대구시청에서는 오지 않으셨고요. 대구동구청 과장님과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이훈경 위원** :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11월 공연인데 7월에 승인받을 것을 서로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일정이 바뀔 것을 모르고 준비하다보니 늦어진 것인지? 그리고 대구 쪽에서도 이를 모르고 승인을 늦게 해주신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기간 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곡하시는 정종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 설득력이 있는데요. 곡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설득력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연출가의 입장에서도 곡이 나오고 나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면 완성도 높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보충이 되려면 더 구체적인 계획서로 저희에게 설득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니까 뮤지컬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기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획단계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본과 음악, 출연진과 연출진에 대한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거치셨다고 했잖아요? 거치셨는데 그게 계획서에 담겨 있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계획서에 홍보 전략이나 작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집중하셨는데 중요한 부분 50%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거죠. 뮤지컬 계획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계획이 다 담겨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본과 편곡, 출연진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야 되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뮤지컬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뮤지컬 계획서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중장기 수익 계획이 나와 있는 게 보통 뮤지컬 계획서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하실 때 그것을 철저히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태 위원** : 아까 이훈경 위원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으로 만약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정갑영 위원장대행** : 예산구성을 보면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어렵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세요. 국회지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완성도가 높지 않거나 지정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엉성한 계획서를 가지고는 그것을 그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로아컴퍼니나 대구동구문화재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세요. 설득력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자부담 또한 아니라도 시스템에 입력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배우들과 계약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지금 배우의 문제도 있지만 작곡가의 작품이 스케치라도 되어 있고 연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도가 높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저희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쇼케이스와 트라이아웃 공연을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작곡이 나와 있던 상황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것은 준비하신 과정이고요.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계획서에 담아내 주지 않아서 저희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작발표회도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공연은 12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공연을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인력을 포함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 일반적인 지원사업에서 4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회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개월 동안 어떻게 공연이 가능할지,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올라와야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렇게 하시죠.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장인주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일정이 2023년 12월 중 2회 공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졌나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원래 초기 날짜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에 12월 1일, 2일, 3일로 대관을 해 놓았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런데 제가 아양아트센터 공연 캘린더를 보고 있는데 그날은 다른 뮤지컬이 올라가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신승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장인주 위원** :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그게 저희 공연입니다.

**장인주 위원** : 그렇군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아직 팔공산 오디세이가 가제이기 때문이에요.

**장인주 위원** : 그러면 셋업 날짜는 며칠을 생각하고 계세요?

**정도영 예스로아컴퍼니 예술감독** : 셋업은 그 전에 기간이 되는대로 할 것이고요. 최대한 길게 잡을 것이지만 4일 정도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주 위원** : 4일이요? 그런데 그 앞에 셋업이 가능한 날짜가 안 나와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동구문화재단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고 그런 조건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죠. 완성도가 높지 않은 작품인데 국회에서 지정사업으로 들어온 작품들을 이렇게 지원하면 아까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좋은 작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배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드셔서 다시 보고해 주신 이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죠.

**김진각 위원 :**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서가 좀 허술한데 검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수를 받으시고 사업 방향에 맞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사실 지역 뮤지컬의 관심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2회 공연을 해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관광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창작뮤지컬에 집중해서 이 뮤지컬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효과를 가져오고 뮤지컬 향유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 정도로 집중해야지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타임 스케줄을 촘촘하게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곡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성을 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사업계획에 대한 수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지역관광프로젝트라는 것은 작년부터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신승겸 장군의 유적지에 문화콘텐츠 개발을 해서 매년 체험학습과 공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2년째고요. 신승겸 장군 유적지 안에 왕건과 신승겸의 이야기로 저희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팔공산 오디세이라는 유니버스 형식으로 뮤지컬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문화재청 사업으로 지역 관광지를 연계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팔공산 오디세이 지역관광 연계프로젝트 관광콘텐츠 개발로 풀어봤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역관광과 연계되려고 하면 일종의 단발성 행사잖아요? 단발성의 공연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구를 대표하는 뮤지컬 브랜드로 만들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관광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공연을 2번 했다고 해서 관광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정갑영 위원장대행 :**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사항이 나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사항을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하죠.

**홍성태 위원 :** 혹시 공연날짜를 늦출 수는 없나요? 늦춰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서류라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는 게 어떤가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원래 사업계획서에 공연날짜는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성태 위원 :** 내년 2월이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예. 수정해달라고 요청받아서요.

**홍성태 위원 :** 무엇을요?

**김현숙 예스로아컴퍼니대표 :** 기간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12월 1일, 2

일, 3일에 공연을 하는 거였고요. 대구시의 추경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날짜를 기다리다 보니까 12월로 공연을 잡았습니다.

**홍성태 위원** : 12월에 공연을 하더라도 12월 말에 하면 더 여유가 있지 않나요?

**김현숙 예스컴퍼니대표** : 맞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궁금해지는데요. 당초 2월이었던 공연이 어떤 요청으로 12월로 당겨지신 건가요?

**김현숙 예스컴퍼니대표** : 저희가 올 초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과 4월에 추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라 공연 일정을 최대한 늦게 잡은 날짜가 12월 1일, 2일, 3일이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아니요. 원래는 내년 2월이었다면서요. 누가 요청해서 12월로 당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년 2월이 올해 12월로 당겨졌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김현숙 예스컴퍼니대표** : 그것은 예술위원회 쪽에서 요청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때문이에요.

**김윤경 공연예술부 차장** : 당초 사업계획서는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12월 안에 교부되어야 하고 내년 2월까지의 정산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2월에 공연을 진행하면 정산과 공시 등에 있어서 일정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공연할 수 있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을 경우 12월에 하자는 말씀이셨죠?

**김윤경 공연예술부 차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됐던 것처럼 대구시와 대구동구의 추경 일정이 많이 늦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대행** : 그것은 지역의 문제인데요. 대구시와 대구동구의 문제인데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예술위원회에서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시고자 하는 작품의 완성도는 높아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김현숙 예스컴퍼니대표** : 예.

**정갑영 위원장대행** :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의문점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예스컴퍼니대표** : 예, 감사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협의는 안 되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지정해 들어온 사업에 대해 이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가 거의 없었지만 사업내용을 보고 금액의 일부 조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본도 알 수 없고, 누가 어떻게 연출할지도 모르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연말

까지 추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할 수 있는데 예술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받거나 결산 국회 때 보면 “왜 이월을 했냐?” 라고 지적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도 차라리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한 번 더 사업계획을 검토한 다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2월이나 3월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은 이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무진과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월은 사무처에서 곤란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도 이월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사무처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완된 부분을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당해연도 사업을 2월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사업기간을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로 기간을 변경하는 거죠?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렇죠.

**송시경 사무처장** :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12월까지 교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5,000만 원이 넘으면 2차에 걸쳐 분할하여 교부를 해야 하는데요. 1차적으로 1억을 교부하고 12월 말에 교부를 했는데 공연이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판단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12월에 2차 교부를 하고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2월까지 연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송시경 사무처장** : 이것은 보고사항이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대구동구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 2023년 제4차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자료 33쪽입니다. 8월 16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건은 아르코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안인데요. 논의는 간단합니다. 일단 사무처는 아르코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안 자체의 틀을 그대로 운영하는 한에서 8기 위원회의 요구사항이나 새로운 과제를 반영시켜보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 설정되어 있는 중점과제 등이 항상 강조되어 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평범한 워딩으로 강조되었던 방향이 8기 위원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의 수정안이 34쪽부터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로 나누어 아래에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전략을 택하다 보니 기존에 세부과제로 있는 과제가 목표가 되고, 목표가 과제가 되는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8기 위원회의 중점과제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비전전략 수정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은 워딩을 분명히 하고 특히 기관의 독립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니 그것을 공고히 하는 전략이나 방향을 택하고 그 다음 이런 평범한 워딩이 반복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설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지역문화 같은 것들이 강조되었겠지만 지금은 문체부, 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지역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관계에서도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어딘가에 담겨질 필요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도 나열식으로 가지 말고 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2년 동안이라도 확실하게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표사업으로써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런 역할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맞춘 과제들이 있어요. 국정과제가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술위원회가 국정과제 하나하나를 가져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끼워 맞추다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비전과 전략이 상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 그리고 국정과제 하나하나를 과제로 반영하는 것보다 예술위원회가 항상 말을 해 왔던 것이지만 요즘 K-컬처라고 얘기하는데 K-컬처와 기초예술의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립해서 기초예술의 어느 부분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K-컬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내서 그것에 대한 지원과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ESG 경영 체계 확립 부분은 아래에 있던 세부과제가 목표로 올라온 것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보다 남은 2년 동안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서 단기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면 새로운 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외부의 자문도 받고 심포지엄도 해가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개선해 보자는 내용으로 논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받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경영전략 개선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보시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열고 다음 정기회의 때 이것을 논의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갑영 위원** :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확정이 되고 목표와 과제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조직개편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 그러면 기존 조직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9월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사전의견도 취합해서 의결시에는 절차만 통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이 없으면 안건보고를 마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 2023년 제7차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에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외부 위원도 참석했고요. 2가지 안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술나무 후원자 확대를 위한 후원 인센티브 발굴입니다. 6차 회의 때 논의했던 것을 이어서 계속 논의했는데요. 일단 후원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후원자를 확대할 것이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예우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후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체감하는 방향으로 예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개편하면 하는데요. 지금 백스테이지 투어나 도슨트 투어 등 여러 가지를 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로 현재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은 멤버십 전용 라운지가 없는데요. 지금 예술의전당 등은 멤버십 라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예술극장에도 멤버십 전용 라운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후원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후원금의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술나무포럼이라고 있는데 오래 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계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인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 예술나무포럼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실질적인 예술나무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은 ‘문화예술후원인의 밤’을 겨울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화예술후원인의 밤은 후원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행사입니다. 너무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바꿔서 시상식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축제 형태로 후원인의 밤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경매행사 같은 것도 이벤트로 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인의 밤을 9월에 하는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에 출연했던 아티스트들과 예술영재들이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연말 행사 때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예술나무후원자 확대를 위한 예우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조만간 한 두 번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다음에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 카테고리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 제5차 윤리·인권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예, 윤리·인권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세미나를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9월 7일 오후 3시고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에서 이번에 큰 행사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배은주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년째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페스티벌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시, 헬기장에서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청와대 춘추관 2층 전시는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라는 타이틀로 15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미디어 아트전으로 인터랙티브 전시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았으니 1일부터 15일 사이에 와주시면 제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시와 3시에 도슨트를 진행하거든요. 해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장에서는 1일부터 3일 동안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삼국시대 궁중 패션쇼, 뮤지컬, 개막콘서트가 열리고 개막식은 1일 10시 30분에 춘추관에서 진행됩니다. 김영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자와 장애예술인의 콜라보 공연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10시 30분 공연 객석은 만석이 됐고 딱 1자리만 남겨두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남겨놨고요. 3시에 오시면 도슨트 라운딩을 하시면서 개막콘서트까지 꼭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1일 9시라고요?

**배은주 위원** : 10시 30분입니다. 3일까지 하는 페스티벌은 그렇고요. 15일까지 진행하는 전시는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장미진 위원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배은주 위원** : 혹시 토론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배은주 위원** : 저희가 이번에 김예지 의원실과 함께 공동주최로 윤리·인권 소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나 토론자는 문서를 보시면 되고 3시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김예지 의원의 축사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미진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십니다.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가능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윤리·인권 소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고안건 2023년 심의제도운영개선 TF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장인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저희 8차 회의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심의후보단 풀을 2024년 심의 때부터 반영하려다 보니 9월 전체회의 때 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2024년 사업에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동시에 예비선정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4개 장르는 예비선정위원회가 남아 있

습니다. 무용, 전통예술, 연극뮤지컬 분야는 예비선정위원회가 진행되었고 시각예술, 음악, 문학, 문화일반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오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비선정위원회에서는 행정검토 이후 1차 전수검토, 2차 통합논의로 진행되고요. 이후 7개 장르의 예비선정위원회가 모두 진행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9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46쪽 회의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선정위원회 개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만약 현장 대면참석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선정위원이기도 하니 모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심의운영제도개선 TF 회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어제 연극 뮤지컬 예비선정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이따가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할 때 논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공모사업이요?

**장미진 위원** : 이따가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인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로드맵, 스케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은 여덟 번째 보고안건에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김미라 위원** :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9월 14일 선정위원회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하는 건가요?

**장인주 위원** :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고 예비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비선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이견이 없으면 후보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김미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심의위원 후보단이요?

**김진각 위원** : 예.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인주 위원** : 최대 2개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그럴 경우에 분야별 예비선정위원들이 명단을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해야죠.

**김진각 위원** : 공유를 해서 추려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기술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장미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최대수를 2차 심의에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38명이 필요한데 10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갑영 위원** : 풀이 아닌가요?

**정병국 위원장** : 38명은 올해 필요한 인원이고요.

**장미진 위원** : 38명은 누가 정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하던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만 개선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거의 다 자천으로 풀이 구성됐었는데 이것을 자천, 타천으로 구성하고 1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죠. 풀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후보단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심의방식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이미 참여를 했는데요. 전통예술 분야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지원한 사람들이 또 지원했는데 탈락됐을 경우 설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을 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들 안에서도 탈락된 분도 많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추천하신 분이 탈락되었다고요?

**서승미 위원**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3배수 가량을 뽑았잖아요? 물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는 제 개인 의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른 예비선정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반 이상 혹은 3분의 2이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한 가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위위원 후보단 운영을 공개하긴 했지만 전담심의위원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덟 번째 논의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고안건으로 뉴서울CC 운영개선 TF 4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홍성태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예. 뉴서울CC가 우리 기금을 마련하는 곳이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7월에 현황 파악을 위한 1차 발표가 있었고 어제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뉴서울CC가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세균 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라고 하면 “햄버거로 유인하고 콜라를 팔아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현재 수익은 입장수익이 80%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음료, 상

품, 굿즈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런 매출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기금조성을 많이 하려고 하고 단기수익을 강조하다 보니 골프장 구조물 공사나 골프카트나 기계장비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니다. 투자를 굉장히 안 한 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여태까지 수익이라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의 제안은 “투자를 더 해라.”, “라이트 시설을 설치해라.”, “코스를 관리해라.”, “장비를 교체해라.”, “클럽하우스를 바꿔라.” 등으로 개선 비용에 100억 원을 투자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투자를 하면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을 빼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속이 있느냐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피를 인상하는 방안도 그린피를 올려서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3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3부제를 운영하면 수익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는 대단히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3차 발표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3차 발표를 통해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익도 잘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골프장을 갇아 먹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5억 원씩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그냥 숫자를 맞춰서 낸 겁니다. 지금 와서 내장객들,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골프장으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누가 거기에 가겠냐?”, “회원이고 싸니까 간다.” 라고 하는데 이제 비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비용을 올리면 그런 골프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용을 올리고도 오게 하려면 골프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무려 12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겁니다. 25억씩이면 5년 치의 문예진흥기금을 그대로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술위원회가 골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보면 골프장 사장이나 전무를 임명할 때마다 우리 예술위원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못해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예술위원회는 예술위원회대로 돈 25억 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으면서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홍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내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린피를 올리거나 다른 식음료 부분을 올리려고 하면 고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개선이 되었으니 “돈을 더 낼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골프장 회원들이 2,000명인데 2,000명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개선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홍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개선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여섯 번째 보고안건인 뉴서울CC 운영개선 TF 4차 회의 결과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고안건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에 대해서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정부안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심의는 끝나서 사실상 확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7월 말에 보고드린 것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예술창작지원에 많은 감축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까지 보고드렸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예술창작지원이 전년 대비 증액 전년대비 10% 증액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이 516억 원 대비 2024년도에는 572억 원으로 5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기존 공간지원사업을 포함한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문학집필공간지원으로 3억 6,000만원, 시각예술공간지원으로 10억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으로 약 1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24억 규모까지 포함해서 100억 규모로 확

대해서 전년 대비 약 76억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의 핵심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에 2차 심의 때까지는 32억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 해당 예산이 36억 원 규모였는데 2차 심의 대비 68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1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과기술융합지원은 그대로 전액 삭감되어 사업폐지가 됐고 아르코공공예술 같은 경우는 다년도 지원예산 부분이 일단 인정돼서 반영됐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9.6% 증액되었는데요. 조건부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지출이 같이 연동되어 13억 증액된 부분 외에 문화예술지원체계연구라는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지역의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재단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예산으로 1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향유지원은 이미 2차 심의 때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1인당 올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나 1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8% 증액이 되었고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은 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재교부를 해서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일반회계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78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이 말씀드린 178억 원의 규모가 일반회계로 이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산이 예산창작 지원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쉬운 부분은 기관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로 예산 심의가 넘어가는데 사무처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의 사업비 총괄표를 보시면 세부 사업별 증감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과약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세부적인 지원은 가능하면 지방으로 이관을 하라는 것이고 예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술지원의 큰 줄기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위원회를 거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창작지원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지원을 해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창작공간활성화사업 100억 원이 책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예술과기술융합지원 66억 원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과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과 기술 융합을 위해 광화문에 랩을 만들고 창작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내용이 겹치니 예술과 기술 융합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30억 원이라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과는 분명히 다르고 이 분야는 순수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중단할 수는 없고 지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제가 예술과기술융합 관련 TF를 상반기에 운영했었던 사람으로서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하셨던 큰 줄기를 잡아주는 사업으로 주체적인 부분의 예술에 있어서 전 장르를 아우르는 큰 줄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왜 문화창작공간은 증액이 되고 예술과 기술 융합사업은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

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전 분야,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공연, 뮤지컬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술과 기술에 대한 융합사업은 큰 줄기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김미라 위원** :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놓을 수가 없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트코리아랩 사업과는 너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맞다. 중복되니까 우리가 접자.”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김미라 위원** : 예, 성격이 정말 다르고 실질적으로 많이 아쉬운 것은 예술과 기술분야 소집단 또는 예술가들이나 지원자들 안에서 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평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상반기에 조성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큰 틀의 사업적 방향에서 다시 녹여내서 새로운 분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2025년도 IFACCA총회를 유치하려 하는데 주제도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예술창작지원사업 안에 녹여내서 지속될 수 있도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서승미 위원** : 김미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니 이상하다는 의견과 덧붙여서 6월에 예술의 관광자원화가 15%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전통예술 장르의 위원이다 보니 일단 공연예술 해외진출 같은 경우를 보면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내고 호응도도 높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기재부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 법정평가 결과가 많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관광자원화 분야의 평가결과가 좋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창작지원분야에서 100억 원 규모로 증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공모형 보조금 지원사업은 삭감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 기조로 삭감이 되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의 결과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평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관광자원화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재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도 유관기관에 재교부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번 심의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사업이 나열형 사업들입니다. 30억 원 중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같은 법정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그렇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그 기관들도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 기관에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이런 사업들이 맹점이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교부 받아야 하니 예술위원회가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일단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 것 같아 감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사업들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저는 새로 생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창작공간활성화지원 항목 중에 공연예술, 제가 공연 쪽이다 보니 공연예술창작공간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원사업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심의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개선했는데 거기에 이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올해 초부터 정종열 위원님과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관료지원 사업을 녹여낼 여지가 있나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기재부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공연예술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던 민간소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00석 미만의 민간소공연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증액된 내용은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단위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기존에 지원하는 내용이 자체 기획공연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자체 기획공연과 대관료를 할인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결국은 대관료지원사업도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하면 어느 정도 포용할 수가 있어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다만, 지금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023년도 사업에서도 대관료의 50%를 할인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 공모사업 계획안은 지난 2월과 3월에 했던 현장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공개가 됐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며칠 전에 문체부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관료지원사업이 내년에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 올렸다고 말씀하셔서 대관료지원사업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이 사업을 말씀하신 걸까요?

**정병국 위원장** :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주연 부장님 어떤가요? 지금 기재부가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닌가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대관료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승인받은 사업의 디자인 자체가 과거 대관료지원사업이 운영되었던 방식으로 예술단체가 신청해서 그 예술단체에게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지원해 주는 간접지원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현장의 그런 요구들과 정부 방침을 우리가 지혜롭게 디자인을 하면 관객도 지원할 수 있고, 대관료지원도 해소할 수 있고 공연장을 활성화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들을 모아주세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전반적으로 큰 예산 심의방침은 예술위원회 사업은 영국예술위원회의 NPO처럼 거점 중심으로 지원하면 좋겠고 지역문화재단 등에서는 세밀하게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분담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전체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사업이 있는데 예술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사업은 다 제외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그게 많이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예술위원회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곱 번째 보고안건인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정부 확정안 보고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은 공모사업 추진 계획(안)의 초안과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의결은 9월에 의결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고안건 회의자료 5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공모하고자 하는 전체사업의 총괄표와 예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 주셔야 하는 점은 예를 들어 문학분야에 보면 창작주체 밑에 ‘구. 문예지발간지원 24년도 지원결정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년도 지원사업이라 올해 사업을 공모할 때 이미 2024년도에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2024년에는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한 예산입니다. 전체 총괄표는 이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사업들이 전년대비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인 틀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표를 통해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및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에 분야별 현장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무처에서 공모사업의 개편안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을 지난 5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가다듬어서 초안을 만들었고 2주 전에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9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고안을 확정하는 다음 공지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초안을 먼저 공개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공모안을 결정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 공고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현장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이고요.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분야별, 장르별로 현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는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9월 1일부터 6일까지 공모사업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 후보단 개편과 사업개편 그리고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공청회 일정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여쭙보지 못했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정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위원회 의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9월 22일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25일에 전체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가고요. 공고가 나가는 같은 날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내년도 사업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공고가 나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면 바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가안으로는 10월 말일까지 지원신청서에 대한 접수를 마감하고 행정검토를 마친 이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4주 동안 지원심의를 진행하고 그 지원심의 결과를 12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을 마치자마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업무보고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 개선안에 대해 다시 현장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하는 형태의 프로세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업무보고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사업이 많다.”, “신청이 어렵다.”,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다.”, “장시간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에 대표적인 다년간 사업인 중창기창작지원이 더 많은 단체가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개선사항입니다. “사업구조는 단순화하되 수용의 폭은 확대한다.” 일단 사업의 개수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44개에서 내년에는 17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이 사업을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사업을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9개 사업 부서와 개별적으로 논의를 반년 가까이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 사업목적과 내용,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하거나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창작의과정 사업 역시 각 장르 사업 내에 하위 트랙처럼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창작의과정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고 통합심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술인력양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력지원사업이 3개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실제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기술인턴십으로 지원받고 공연예술전문인력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예술인력지원 사업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사업도 생애 첫 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이라는 형태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장르사업들을 보면 문학 같은 경우 현재 다년간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예지발간, 집필공간, 비평지원 사업이고 시각예술도 마찬가지로 공간, 전시, 비평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5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주체, 플레이어라는 개념으로 통합해서 이 플레이어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학으로 예를 들면 문예지발간과 집필공간으로 한정해서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집필공간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창작주체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에 꼭 문예지나 집필공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창작주체들이 지원사업 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플레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확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지원대상을 많이 발굴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사업을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창작 영역의 사업들은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책 영역의 사업들인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에서 향유는 신나는예술여행이나 어린이·청소년대

상 예술지원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은 창작의 단계 틀 안에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영역에 맞도록 특성대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작 영역에서는 9개 사업, 정책 영역에서는 8개 사업이 됩니다. 창작 영역에서는 창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영역에서는 다양성의 증진을 목표로 해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창작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동일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맨 밑의 창작의 과정은 기존에 창작자들이 결과물을 내놓기 전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만 지원을 했고 이를 장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창작자뿐만 아니라 스텝, 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오프트랙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맨 하부구조에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창작산실입니다. 이 사업이 기존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연이나 전시처럼 그해에 어떤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들을 창작산실, 즉 단년도 프로젝트지원의 형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작주체지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술현장에서 역량이 입증된 핵심 플레이어들을 선별해서 3년간 안정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원건수로 봤을 때는 가장 밑의 창작의과정부터 피라미드 형태로 창작의과정이 유일한 소액다건 형태의 사업이라면 창작주체사업은 정말 엄선해서 제한된 창작주체들만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영역입니다.

국제교류의 지원사업들은 사실 기존 지원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주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예술단체에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포함한 네트워크 형성 기반사업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 의결해 주신 공동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인력지원사업은 수요자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3개의 사업을 1개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예술가의 경우는 올 상반기에 의결해 주셨던 예비예술인사업들은 올해 최초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애첫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나는예술여행과 어린이청소년예술지원이 향유대상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단, 어린이청소년예술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창작의 영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신나는예술여행과 동일하게 최종 수혜자가 특정 관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유 영역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창작의 과정, 창작주체 사업에 있어 개선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창작영역을 보시면 왼쪽에는 2023년 기준 44개 사업들 중 창작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장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의 과정, 단년도 발표를 지원하는 창작산실 그리고 다년도 지원은 창작주체 이 3가지 형태로 장르를 불문하고 모두 통합을 하였습니다.

시각예술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수전시지원, 비평지원,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지원 사업은 단년도로 건건이 프로젝트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하나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주체의 경우 문학으로 예시를 들면 문예지발간, 문학집필공간운영으로 따로따로 공모했던 사업들을 창작주체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2023년도 기준 2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총 8개 사업으로 재편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방안입니다. 운영차원에도 현장 업무보고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있었고 시간관계상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주체라는 형태의 사업이 기존 다년간 지원의 사업들을 창작주체의 형태로 통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던 영국의 NPO 지원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국의 NPO나 기존의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3년을 지원에서 한 번 선정하면 2년 동안은 공모가 없습니다. 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줄더라도 매년 새로운 단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 공모

하는 것이 아닌 3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된 말로 돈을 끊어주고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크와 역량강화와 같이 예술가들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정된 사업 안에서 네트워킹이나 원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돈만 끊어주는 게 아닌 그들의 활동성과가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정부가 보조금에 대해 강화된 형태의 관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하고 심의위원 후보단의 임기제를 도입하고요. 지금 이미 예비선정위원회에서도 일부 고려하고 있지만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 모두 모니터링해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보단 자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입니다.

매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아예 선정에서 배제를 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올해 정부에서 많이 강화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미정산, 미반납, 부정수급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원신청 부적격자로 간주, 즉 지원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수를 했더라도 부정수급의 경우와 정보공시미이행이나 불성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심의시 감점을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선정 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가 지원금액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총 3억 원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공연예술체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선정이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복지원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개수가 워낙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총 3건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 3건의 의미는 아까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작 영역에서는 중복 선정을 가급적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급적’의 의미는 다년지원에 선정되면 단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산실에서는 선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예술가의 경우에도 생애첫지원의 형태로 처음 지원을 받지만 창작산실같은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년예술가로만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 설정한 3건의 의미는 예를 들면 창작산실. 그러니까 2024년에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경우 그 다음에 인력지원. 제일 중복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인력지원인데요. 그 인력지원에서 1개 최대한으로 신나는예술여행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성격이 완전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이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의미가 이 정도까지의 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수서면평가를 차년도 심의에 반영해서 지원심의에 선정되고 교부를 받았더라도 집행과정이나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차년도 심의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그 다음 단계의 지원사업으로 건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태로 다음 심의에 반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예산과 같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표를 나눠본 내용입니다.

2024년도 기지원결정액이 올해 선정하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하기로 한, 올해 공모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르별로 보면 문학이 23억 원, 시각 35억 원, 공연예술 270억 원, 다원예술 15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창작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히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보다 일부 증액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문예진흥기금운영계획 최종안이 지난 일요일 오후에 통보가 되었는데요. 공연예술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서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예산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영역은 전년대비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국제교류 23억 원, 일자리 150억 원, 청년예술가 57억 원, 향유 138억 원인데요. 여기에는 아예 폐지된 예술과기술융합

사업이나 공공예술사업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창작이 아닌 정책 영역에서는 예년보다 좀 줄어든 규모로 공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것은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일정을 여쭙보지 못하고 공청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9월 1일에는 정책 영역의 모든 사업들, 9월 5일에 공연예술, 9월 6일 오전에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오후에는 문학분야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2일에 의결이 되고 나면 9월 25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지원총괄부장이 보고한 안건과 앞서 논의하기로 한 지원심의운영제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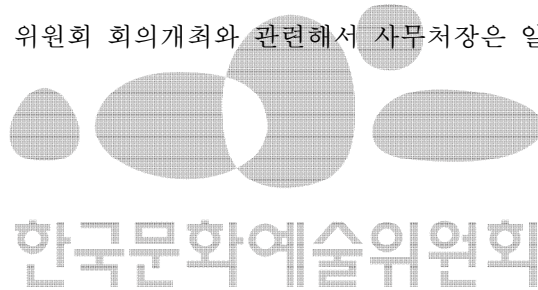
(비공개 논의)

**정병국 위원장** :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처리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지금 당장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더 이상 없으면 8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3년도 9월 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36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회의종료)